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사드, 한국산, 식품, 수입, 불합격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중국, 사드, 한국산, 식품, 수입, 불합격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9. 22
한국산 설탕 세이프
가드 조사

2016. 10.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

2017. 2.
한국산 식품 20톤
수입 불허 사실 발표

2018. 5
사드 배치 예정



핵심이슈
도출

“중국, 한국산 식품 20톤 수입 불허”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중국, 한국산 식품 20톤 수입 불허

지난 2017년 2월 6일, 중국 질검총국으로부터 한국산 화장품 및 식품의 수입이 대거 불허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질검총국의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에 따르면 68개 품목 중 19개가 한국산(2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불허된 물량의 규모가 약 20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금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 불허 배경에 사드 보복이 아닌 '한국 기업의 부주의'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합격 증명 자료 등의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검역 요건 별 최대 허용치를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길 권장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 내 한국산 제품의 수입통관 거부 사례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입 불허 배경을 둘러싸고 사드 보복 조치라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9월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 조사, 10월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 등 이례적 행보가 이어짐에 따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2018년 5월이 다가올수록 사드 보복 무역 규제가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수출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수출 국가가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어 중장기적 진출 계획 수립 시 진출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2017년 2월 6일 발표된 중국 질검총국의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 한국산 화장품 및 식품이 대거 수입 불허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일측에서는 금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 불허 배경에 사드 보복이 아닌 한국 기업의 부주의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드 보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6년 9월 이래 수입 불허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입 불허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수출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수출 국가가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어 중장기적으로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